

初等學校 集團따돌림 加害實態와 關聯 要因 研究

김 석 진*

본 연구는 초등학교 집단따돌림의 가해에 대한 연구로서 가해실태를 분석하고, 집단따돌림의 가해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가정환경요인,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초등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원의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290명, 여학생 320명, 총 610명을 대상으로 '99년 5월 10일부터 2주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따돌림 가해실태에 있어서 전체 610명 가운데 43.2%가 집단따돌림을 한 경험이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배경변인과 집단따돌림 가해형태(소외·무시, 조롱·놀림, 욕설·협박, 강탈·구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조롱·놀림, 강탈·구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강탈·구타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집단따돌림에 있어 대도시나 읍면지역 학생들이 중소도시 학생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상가·유홍가 및 기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주택가에 사는 학생들보다 집단따돌림 소외·무시, 조롱·놀림, 욕설·협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가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외·무시, 조롱·놀림, 강탈·구타에서 수용적인 집단보다는 통제적인 집단에서 집단따돌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 서 론

1. 문제제기

최근 들어 우리 나라 청소년들 사이에 집단따돌림 소위 '왕따' 현상이 급증하고 있으며 점차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9)에서 실시한 '96-'98(3년간) 사이의 학교폭력상담사례 2,683건 중 집단따돌림의 비율과 1개월~2년 지속된 장기간 따돌림 비율이 각각 '96년 49%, 57.6%에서 '97년 33.5%, 26.3%로 감소했으나 '98년에는 다시 42.6%, 36.1%로 증가하고 있고, 장소도 교내에서 등하교길, 학원가, 오락실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1999. 5. 12).

* 양진초등학교

또한 '왕따' 행위는 단순히 다른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방해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일상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을 수반한 조직적 따돌림이 많다(국민일보, 1999. 5. 10). 서울에서는 여중생들이 폭력씨클을 조직하여 동료학생을 집단으로 따돌리고 이를 견디다 못해 전학간 학교의 같은 씨클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따돌리게 하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다(한겨레신문, 1999. 5. 10자).

집단따돌림이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한 혹은 특정 집단을 그가 소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일시적·우발적이 아닌 지속적인 언어적 신체적인 모든 행위라고 볼 수 있다(구본용, 1997: 이종원, 1998).

집단따돌림의 형태는 '말을 걸지 않거나 상대하지 않기', '신체적 약점 잡아 놀리기', '심한 욕설을 하거나 협박하기', '물건을 빼앗거나 구타하기'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집단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정신적·육체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며, 각자의 인격 형성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에 걸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학교 중퇴, 정신질환,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질적·양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미미하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피해자의 개인내적 특성 분석을 통한 접근과 가해자의 행위나 의도 분석을 통한 접근이 그것이다(구본용, 1997: 이규미, 1998: 김용태·박한샘, 1997).

연구대상 또한 대부분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실태분석에 그치고 있다(김용태·박한샘, 1997: 한국교육개발원, 199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9).

그러나 집단따돌림의 조기화와 상급학교로 이어지는 경향(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1998)에 비추어볼 때 초등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대책은 청소년기 전체로 볼 때 보다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해자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정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집단따돌림 가해 실태를 조사 분석하는 일은 교육적으로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집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가해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폭력·비행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되,

가정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및 내용

집단따돌림은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만연되고 있으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화 하고 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집단따돌림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며, 각자의 인성 형성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에 걸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큰 것이다.

또한 기존의 조사(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1998)에 따르면 중·고등학교 학생의 집단따돌림 피해자들은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러한 경험을 한 것으로 밝혀진 점으로 볼 때 가해현상 또한 예외가 아닐 것이며, 집단따돌림에 대한 대처가 초등학교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따돌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뿐만아니라 가해자의 실태와 특성 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집단따돌림의 원인을 찾아 집단따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집단따돌림의 실태를 분석하고, 초등학교 학생에 가장 영향이 큰 가정환경이 집단따돌림 가해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집단따돌림에 대처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인과 집단따돌림 가해 정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다.

둘째, 부모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가해 정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집단따돌림

1) 집단따돌림의 개념

국내에서는 집단따돌림이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한 혹은 특정 집단을 그가 소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라고 지칭한다(구본용, 1997; 이종원, 1998).

집단따돌림과 유사한 개념으로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이지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지메란 어떤 집단원이 그 집단의 행동(원리)이나 사고방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집단 구성원 전체가 그 한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집단 학대행위이다(모기 유따까, 1996). 모리타(森田)는 “동일 집단내의 상호작용 과정에 있어서 우위에 선 자가 의식적 또는 집합적으로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 사카모토쇼우이찌(坂本昇一)는 “자신보다도 약한 입장에 있는 자에게 육체적, 심리적 고통이 뒤따르는 공격을 일방적으로 계속 가하는 행위”, 하다 코오이치(羽田紘一)는 “동일집단 내에서 단독 혹은 복수의 성원이 자신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성원에 대해서 신체적 폭력이나 위해를 가하거나 심리적인 고통이나 압력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이지메를 규정하고 있다(황성숙, 1998).

또한 집단따돌림과 유사한 개념으로 괴롭힘과 집단괴롭힘이 있다.

괴롭힘(bullying)이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에 대해 힘을 행사하기 위한 말이나 행동을 취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학대와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London Family Court Clinic 홈페이지, 1996).

황성숙(1998)은 집단괴롭힘은 동일집단 내에서 다수와 개인 또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강자가 약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육체적·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누군가의 별명을 부르는 것, 헐뜯거나 낙서하는 것, 활동에서 그들을 내쫓는 것, 말을 걸지 않는 것, 위협·불편하게 하거나 겁을 주는 것, 금품을 빼앗거나 손상시키는 것,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 혹은 그들이 원치 않는 것을 시키는 것 등 괴롭힘의 범주가 다양하며 괴롭힘이란 피해자의 특성보다는 가해자의 의도나 행위에서 비롯된 정의로 볼 수 있다.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신체적·심리적으로 약하고, 비주장적이며, 반격하는 일이 드물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김용태 등(1997)의 조사에 나타난 따돌림의 대상은 잘난척하고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는 아이가 응답자의 70%를 차지하였으며, 선생님에게 고자질하는 아이, 공부만 잘하고 똑똑한 척 하는 아이 등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집단따돌림을 집단괴롭힘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는데(구본용, 1997), 피해자들의 분포를 보면 괴롭힘보다 더 폭넓고 복잡한 면이 있다.

이상과 같이 국내와 외국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집단따돌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집단따돌림은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을 그가 소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인 일체의 행위이다.

2) 집단따돌림의 유형

청소년대화의 광장(1997)에서 실시한 집단따돌림의 유형 조사 결과를 보면 ‘전혀 말을 걸지 않거나 상대를 하지 않는다’(52.9%),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악을 올린다’(42.1%),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다’(40.8%), ‘여러 사람 앞에서 무시하고 창피를 준다’(39.8%),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하면서 조롱한다’(39.3%)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1998)의 상담사례에서는 ‘물건이나 신체를 툭툭 건드리거나 치고 지나가기’, ‘지나갈 때 발걸기’, ‘분필이나 물건던지기’, ‘물이나 도시락 반찬 빼앗아먹기’, ‘엉뚱한 소문내기’, ‘때리기’,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하기’, ‘말을 따라하며 놀리기’, ‘면박이나 편잔주기’ 등이었다.

김용태·박한샘(1998)은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조사를 통해 개인과 집단적 구분없이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식을 취하여 친구를 따돌리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하면서 조롱한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악을 올린다’, ‘수업시간에 쪽지를 주거나 말을 걸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와 같은 내용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따돌림의 주체가 개인이기 보다 집단적으로 그 아이를 소외시키거나 고립시키는 등 은밀한 방법들이다. 예를 들면, ‘전혀 말을 걸지 않거나 상대를 하지 않는다’, ‘쉬는 시간에 같이 놀지 않는다’, ‘점심시간에 밥을 같이 먹지 않는다’, ‘등교길이나 학교 길에 자기들끼리만 간다’, ‘부탁할 때마다 거절한다’, ‘공책이나 자기 물건을 빌려주지 않는다’, ‘여러 사람 앞에서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은연중에 나쁘게 말한다’와 같은 것들이다. 세 번째 유형은 ‘따로 불러서 집단으로 구타한다’와 같이 집단적인 방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유형이다.

모리타(森田)는 이지메 행위를 심리적 장난형, 심리적 이지메형, 물리적 장난형, 물리적 이지메형으로 유형화하였으며, 황성숙(1998)은 집단괴롭힘의 유형을 소외형, 협박형, 놀림·조롱형, 심한 장난형, 강제형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집단따돌림의 다양한 사례들은 언어적 신체적 폭력 행사 유무와 적극성을 기준으로 비폭력적·심리적 집단따돌림과 폭력적·물리적 집단따돌림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두 유형을 다음과 같이 집단따돌림 가해집단의 유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첫째, 비폭력적·심리적 집단따돌림으로 예를 들면, ‘노는데 끼워주지 않기’, ‘전혀 말을 걸지 않거나 상대하지 않기’ 등 무시·소외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기’, ‘친구를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 돌리기’, ‘집안 형편이나 신체적 장애와 관련하여 놀리기’ 등 조롱·놀림으로 구분한다.

둘째, 폭력적·물리적 집단따돌림으로 예를 들면, ‘욕설을 하면서 시비걸기’, ‘협박하거나 강제로 심부름 시키기’, ‘숙제를 강제로 해오게 하거나 가방 들게 하기’ 등 욕설·협박과 ‘준비물이나 학용품 빼앗기’, ‘친구의 좋은 물건을 내것과 강제로 바꾸기’, ‘폭행하기’ 등 강탈·구타로 구분한다.

2. 집단따돌림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및 선행연구 고찰

우리 인간은 환경적 조건과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일반적으로 환경이라면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제조건을 말하며 개체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 개체에게 작용하는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학적, 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 인간의 심리적 특성 형성에 있어서 환경과 유전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어느 한쪽의 작용이 결핍되었을 때 원만한 발달이 이룩될 수 없다. 두 요인 중에서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 하는 것은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르지만, 유전적인 요인은 생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개체의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청소년을 둘러싼 대표적인 외부환경으로 가정, 학교, 사회 등을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인 초등학교 학생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사회환경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선행연구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배경 변인과 집단따돌림

본 연구에서는 성별, 가족구조, 경제수준별로 집단따돌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성별과 집단따돌림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집단따돌림 경험에 있어서는 성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집단따돌림 경험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김용태 등, 1997). 그러나 집단따돌림의 일정 기간동안에 가해지는 횟수나 폭력성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로 나타났다.

가족의 구조적인 요인으로 결손가정 및 계부모가정, 빈곤가정 등이 주로 연구되고 있으며 이 요인은 이론적으로 청소년 비행에 유력한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결손가정은 가족 역할이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역할 구조상의 변화를 가져오며 사회의 제적응을 요구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즉 부모 모두 안 계신 경우에는 계부, 계모와 함께 생활한다 할지라도 정상가정보다 더 적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 방임상태에 놓이기 쉬우며 자녀의 성격이 공격적이 되고 더 많은 비행을 저지르기 쉽게 된다. 결손가정을 비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고(Glueck, 1950), 결손가정 출신일수록 문제행동 발생율이 높았다고 하였다(김규훈, 1988; 김인자, 1991; 최선남, 1990; 최응렬, 1985).

그러나 Nye(1958)는 결손가정이 비행을 야기하기보다는 결손이 없다고 하여도 문제가 있는 가정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반론을 제시하였으며 Van Vooris(1988)는 가족의 기능이 일차적인 원인이며 결손가정과 같은 구조적인 요인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중류층 이상 가족과 양친가족의 청소년도 비행이나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많으며(이영숙, 1993; 전광희, 1992) 자기보고식의 학술연구에서도 가족의 빈곤이나 부모의 결손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성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빈곤가정은 수입의 빈곤과 같은 금전적 요인의 부족에 의한 절대적 빈곤가정과 희망하는 문화생활 등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겨나는 심리적 요인의 상대적 빈곤가정으로 분류된다. 절대적인 빈곤가정은 모자 가족, 자녀 가족 등에서 많이 나타나며 국민 총생산이 낮은 국가일수록 절대빈곤 가정의 비율이 높아진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을 열등감에 빠뜨리고 무기력하게 하며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 시킴으로써 특히 청소년들로 하여금 공격적 행위로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면 국가가 발전될수록 금전적 절대빈곤 가정은 감소하는 대신 심리적 차원의 상대적 빈곤가정의 비율이 증가된다. 상대적 빈곤가정은 역시 자녀들에게 무력감, 열등감, 사회에 대한 반발, 반항심, 공격성, 폭력성 등을 초래하게 할 가능성이 커지며 가정문제를 유발하기 쉽다(권이중, 1996). 경제적 빈곤으로 자녀의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요구가 적절하게 충족되지 못할 때 문제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빈곤가정 출신의 청소년이 부유한 가정 출신의 청소년보다 문제행동이나 비행으로 구속되어 판결받을 기회가 높기 때문에 경제적 빈곤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주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정유미, 1997).

2) 가정환경과 집단따돌림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과정을 통해 계속적으로 경험을 습득하고 영향을 받는 것은 가정환경이다.

가정이란 부모와 부부 및 자녀로 구성되는 사회의 원초적인 집단으로 거주, 기타, 경제적, 문화적 인자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가정은 인간이 처음으로 사회관계를 맺는 곳이며 가정을 통하여 사회과정을 경험하면서 성인으로 성장한다. 그러므로 가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의 장이며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가정은 언어지식은 물론 정서적 발달과 행동양식, 그리고 가치관 등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다(김정제, 1984; 김정옥, 1989).

청소년 비행과 관련한 연구들은 청소년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생활영역, 즉 가정, 학교, 친구변인을 주로 다루고 있다(Giordano, 1989; Hirschi, 1969; Glueck and Glueck, 1950; Cochran and Bo, 1989; Canter, 1982; Nye, 1958).

이중 가정변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다른 변인들이 열악하다고 해도 가정 변인에 의해 예방과 치유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가정 변인이 열악한 경우에는 다른 변인이 아무리 우호적이라도 비행행동의 예방과 교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김병석, 1996). 청소년 비행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가정 변인이 가장 빈번히 다루어져 온 것만으로도 그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가정변인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은 가족을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협하는 주 요인으로 가족 구조의 해체와 기능 약화를 들어, 보편적으로 이혼, 편부모 가족, 빈곤 가정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족의 자녀가 일탈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가정환경 속에서 청소년은 심리적, 경제적 적응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김만두, 1986; 박성수, 1981; 송성자, 1987; 김인자, 1991; 최선남, 1990; 권이중, 1996; 정유미, 1997; Glueck, 1950). 박정호(1996)는 맞벌이 가정에 있어서 부모의 맞벌이 자체가 청소년 범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주부의 귀가 시간이 늦을 때의 가정불화, 타 지방으로의 전근으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 생활, 주부의 1인 다역에서 오는 심리적·육체적 피로가 자녀교육과 양육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Glueck은 범죄 청소년들의 가정은 일반 청소년들의 가정보다 빈곤하다고 말하고, 가정의 경제적 빈곤은 비행과 범죄발생의 요인으

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Patterson 등(1989)은 특히 가정변인 중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어 그 영향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정에서의 비효율적인 양육이 아동의 무절제한 행동을 초래하고, 결국 비행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비행을 총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집단따돌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양육방식이 폭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관점은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에 의해서 주장되어 왔다. 학교나 상담장면에서 폭력적 문제 학생이나 내담자들은 흔히 초기의 양육과정에서 부모로부터 거부되었거나 과잉보호 혹은 과잉간섭을 받은 자녀들이다. 이들 자녀의 부모들은 이들 자녀들의 요구와 감정상태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폭력적이고 충동적이며 상습적인 자살미수자들의 치료로 유명한 Marsha Linehan(1987, 1993)은, 이러한 부모들의 무관심, 무시, 혹은 외면을 그러한 문제들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하였다.

Bower와 Edward(1979)는 부모와 아동과의 관계를 수용(acceptance)과 통제(control) 두 변인으로 나누어 높은 수용은 도덕발달에 긍정적 관련을 갖고, 거부는 나쁜 적응관련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부모의 통제란 부모의 기준이 엄격한 정도를 말하고, 통제가 거의 없는 것은 공격과 부적응을 낳는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스타일을 수용과 통제의 정도에 따라서 아동을 수용하지 않고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하는 권위주의 스타일(authoritarian style)과 통제와 사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제한은 확고히 하나 배경이유를 설명하고 아동과 주고받는 대화를 장려하여 수용하는 전문 스타일(authoritative style), 그리고 허용 스타일(permissive style)로 허용 의애행과 허용 무관심으로 나누었다(Baumrind, 1971).

Cooper(1983)는 5, 6학년 학생들에게 부모의 결혼 유형에 대하여 조사하여 가정을 다섯 가지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양부모의 응집된 단란한 가정(two parent cohesive family)으로 두 부모와 형제들 사이에 돈독한 유대를 느끼고, 둘째는 한 부모의 응집가정(one parent cohesive family)이며, 셋째는 소외된 가정(isolated child)으로 아동이 고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넷째는 분열된 가정(devided family)이며 부모 사이에 싸움을 바라보고 그 중 어머니나 아버지 편에 기울어진다. 마지막으로는 부모의 연합(parent coalition)으로 아동들이 분열하는데 부모가 편당하는 경우이다. 그에 의하면 첫째와 둘째 유형은 자존심을 높여주며 세 번째 유형 가정의 아동은 자존심이 낮으며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유형은 부모로부터 느끼는 거부나 수용의 정도에 따라 자존심이 중간정도로 된다. 분열된 가정의 아동은 자존심이 가장 낮고 인간관계도 나쁘며 가장 단란한

가정은 아동의 자존심을 높게 길러 주며 부모들 사이에 갈등을 느끼면 자존심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 유형에 따라 아동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가정환경이 구조적으로 열악하고 통제적인 양육행태를 많이 접하는 청소년일수록 이를 학습할 가능성이 높고, 비행행위의 긍정적 인식 또한 높으며 이는 집단따돌림 같은 문제행동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정환경의 한 변인으로서의 부모의 양육 유형을 수용(acceptance)과 통제(control) 두 차원으로 분류하여 집단따돌림 정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

청소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는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장과정을 통해 계속적으로 경험을 습득하고 영향을 받는 것은 가정환경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 학생은 가정환경이 다른 환경에 비해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실제로 폭력문제를 지닌 내담자들이 어릴때부터 행동장애를 보인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다(김병석, 1996).

집단따돌림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은 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가해와 피해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며, 더욱이 초등학교에서의 그것은 중·고등학교 등 상급학교 및 성인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하는 근본적·장기적이고 예방 차원까지 포괄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기에 그만큼 중요성을 더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초등학교 학생의 집단따돌림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집단따돌림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집단따돌림의 실태를 파악한다.

(1) 집단따돌림 행위를 소외·무시, 조롱·놀림, 욕설·협박, 강탈·구타로 나누어 어느 정도 가해를 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가해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해학생의 특성은 어떠한가를 분석한다.

(2) 친구가 집단따돌림을 당할 때 제3의 학생들의 대처양식은 어떠한가를 분

석한다.

둘째, 배경변인과 집단따돌림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성별, 지역별, 생활공간별, 주거환경별로 집단따돌림 가해정도는 어떠한가를 분석한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통계적인 집단과 수용적인 집단의 집단따돌림 가해정도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의 선정

본 연구의 모집단은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학생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을 고려하여 서울과 수도권 일원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99년 5월 10일부터 2주간에 걸쳐 조사하였다.

이를 다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등 3지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당 3개교씩을 선정하였으며, 총 조사 대상자 610명 중에서 지역별로는 대도시 188명, 중·소도시 197명, 읍·면 225명 이고, 성별로는 남학생이 290명이며, 여학생이 320명이다. 분석대상 설문지의 코딩 및 편청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표 2 :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인	사 례 수	백 분 율
성 별	남 학생	290	47.5
	여 학생	320	52.5
지 역 별	대 도 시	188	30.8
	중 · 소 도 시	197	32.3
	읍 · 면	225	36.9
생 활 공 간	방 을 혼자 씀	340	55.7
	방 을 혼자 쓰지 않음	270	44.3
주 거 환 경	주 택 가 (아 파 트 포 함)	420	69.0
	상 가, 유 종 가 및 기 타	189	31.0

2. 조사도구의 구성 및 내용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정도와 그 원인에 관한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의 측정도구를 사용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도구」와 「집단따돌림 가해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1)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

본 연구에 사용된 부모 양육 척도 조사 도구는 광중섭(1993)의 부모의 양육태도의 하위 변인을 재구성하여 제작하였는데, 수용-통제차원은 아동중심-성인중심, 민주적-전제적, 격려적-비난적, 애정적-적대적 등 4가지 요인을 사용하여 점수화 하였다.

설문은 모두 24문항이며, 피검자들의 반응 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단계 척도법을 사용하고, 짝수 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했다. 문항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 120점~최하점수 24점으로 하고, 38점 이하를 통계적인 집단, 39~57점까지를 중간집단, 58점 이상을 수용적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각 문항별 측정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 3 : 부모 양육태도 조사 문항별 내용

양 육 태 도	문항수	문 항 번 호
수용적 ↔ 통제적		
아동중심-성인중심	6	1, 2, 3, 4, 5, 6
민주적-전제적	6	7, 8, 9, 10, 11, 12
격려적-비난적	6	13, 14, 15, 16, 17, 18
애정적-적대적	6	19, 20, 21, 22, 23, 24

2) 집단따돌림 가해 정도 조사

집단따돌림 가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 선정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7)과 김용태·박한샘(1997), 그리고 황성숙(1998)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29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집단따돌림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외·무시를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항목은 ‘친구가 인사해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일부러 노는데 끼워주지 않았다’ 등 5개 항목이다.

조롱·놀림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항목은 ‘친구의 별명을 나쁜 의미로 부르면서 놀렸다’, ‘신체적 장애나 체형과 관련하여 심하게 놀린 적이 있다’ 등 7개 항목이다.

욕설·협박을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항목은 ‘××놈(년), ××새끼 등의 욕설을 한 적이 있다’,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았다’ 등 9개 항목이다.

강탈·구타를 측정하기 위해 선정된 항목은 ‘남의 준비물, 공책, 연필 등을 빼앗은 적이 있다’,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등 8개 항목이다.

이상과 같은 항목을 조사대상자들에게 제시한 후, ‘지난 1년간 같은 학급·학교내의 급우나 선후배에게 집단적으로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같은 학급 학생에게」와 「다른 학급 학생이나 선·후배에게」로 구분하여 ‘일주일에 2번 이상’ 1점, ‘어쩌다 한두번’ 2점, ‘그런 적 없었다’ 3점 등의 응답 범주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각 유형별 점수 범위는 소외·무시가 최저 10점~최고 30점, 조롱·놀림이 최저 14점~최고 42점, 욕설·협박이 최저 18점~최고 54점, 강탈·구타가 최저 16점~최고 48점이며 고득점일수록 따돌림 정도가 약하고, 저득점일수록 따돌림 정도가 강하다

각 문항별 측정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 4 : 집단따돌림 가해 정도 조사 문항

집단따돌림 가해 형태	문 항 수		문 항 번 호
	같은 학급 학생에게	다른 학급 학생 또는 선·후배에게	
무시·소외	5	5	1, 2, 3, 4, 5
조롱·놀림	7	7	6, 7, 8, 9, 10, 11, 12
욕설·협박	9	9	13, 14, 15, 16, 17, 18, 19, 20, 21
강탈·구타	8	8	22, 23, 24, 25, 26, 27, 28, 29

3) 자료 분석

a) 통계적 방법

첫째, 본 조사에서 독립변인으로 선정된 요인에 의해 나누어진 각 집단의 집

중 경향치와 변산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각 집단 평균 차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ANOVA검증을 사용한다. 이러한 모든 통계의 유의도는 $p < .05$ 수준에서 살펴보며 통계분석은 spss+(Ver 7.0)를 사용하였다.

b) 측정도구의 신뢰도

표 5 : 측정도구의 신뢰도

척 도	문항수	표준화된 α 계수
부모 양육태도	24	.77
집단따돌림 정도	29	.78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 사용된 부모 양육태도와 관련된 24개의 문항들은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신뢰도가 검증된 문항들이지만 다시 한번 측정된 결과, α 값이 .77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집단따돌림 정도의 α 값은 .78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 양육태도나 집단따돌림 정도에 관련된 측정의 신뢰도는 큰 무리가 없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부모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정도와의 관계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국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 표집에 있어 연구자의 임의 표집에 의해서 표집되었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IV. 결과 분석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집단따돌림의 가해집단 실태를 파악한 후, 배경변인, 부모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정도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결과 분석

1) 집단따돌림 가해 실태

a) 집단따돌림 가해 사례 분석

집단따돌림 가해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학생의 43.2%가 집단따돌림을 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로는 남학생 46.9%, 여학생 39.8%로서 남자가 여자보다 집단따돌림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욕설·협박 33.8%, 조롱·놀림 28.6%, 강탈·구타와 소외·무시가 각각 6.6%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욕설·협박 28.8%, 조롱·놀림 25.4%, 소외·무시 10.7%, 강탈·구타 6.6%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분포가 비슷하나 여자는 남자에 비해 소외·무시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6 : 집단따돌림 유형별 가해 실태

유형	남자 (N=290)		여자 (N=319)		전체 (N=610)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빈도수	백분율
집단따돌림 가해 전체*	136	46.9	127	39.8	263	43.2
소외·무시**	19	6.6	34	10.7	53	8.7
조롱·놀림	82	28.6	81	25.4	163	26.7
욕설·협박	98	33.8	92	28.8	190	31.1
강탈·구타	19	6.6	21	6.6	40	6.6

* 집단따돌림 가해 전체란 네 가지 집단따돌림 유형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한 적이 있는 비율임.

** 소외·무시형이란 소외·무시형 집단따돌림 관련 하위문항 중 어느 한 문항이라도 '일주일 에 2번 이상'에 응답한 비율임. 다른 유형도 마찬가지임.

집단따돌림의 가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놈(년)', '××새끼' 등의 욕설을 한 적이 있다'가 24.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 사람을 가리켜 "채수없다"는 말을 해보았다' 16.2%, '남이 보는 앞에서 친구에게 "못난 놈(년)", "멍청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13.0%, '친구의 별명을 나쁜 의미로 부르면서 놀렸다' 10.5%,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왜 쳐다봐?", "기분 나빠?" 등의 시비를 건적이 있다' 7.4% 순으로 나타났다(<표-7> 참조).

가해의 대상에 있어서는 ‘다른 학급학생 또는 선·후배’ 보다는 ‘같은 학급 학생’에게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 집단따돌림 가해 구체적 사례

문항		N=610(단위: %)					
		같은 학급 학생에게			다른 학급 학생 또는 선배, 후배에게		
		일주일 2번이상	어쩌다 한두번	그런적 없었다	일주일 2번이상	어쩌다 한두번	그런적 없었다
소외 · 무시	친구가 인사해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3.0	31.3	65.7	2.6	21.1	76.2
	일부러 노는 데 끼워주지 않았다	3.1	37.0	59.9	2.6	21.8	75.6
	묻는 말에 줄은 척도 안했다	3.6	33.3	63.1	3.3	17.5	79.2
	점심을 같이 먹지는 아이를 끼워주지 않았다	1.5	11.8	86.7	1.1	6.6	92.3
	등·하교때 일부러 같이 가지 않았다	1.6	17.2	81.1	2.3	10.5	87.2
조롱 · 놀림	친구의 별명을 나쁜 의미로 부르면서 놀렸다	10.5	39.2	50.3	6.1	22.6	71.3
	한 사람을 가리켜 “재수없다”는 말을 해보았다	16.2	61.3	22.5	9.2	36.7	54.1
	친구를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쫄린 적이 있다	3.0	17.4	79.7	1.5	7.5	91.0
	신체적 장애나 체형(예를 들어 키나 몸무게)과 관련하여 심하게 놀린 적이 있다	3.6	29.7	66.7	3.1	13.3	83.6
	공부를 못하거나 머리가 나쁘다고 심하게 놀린 적이 있다	3.4	21.1	75.4	2.1	11.0	86.9
	소심한 성격은 가진 아이들 심하게 놀린 적이 있다	2.8	15.6	81.6	2.3	7.5	90.2
	집안 형편(매우 부유하거나 매우 가난해서)과 관련하여 심하게 놀린 적이 있다	1.0	6.4	92.6	1.0	3.6	95.4
욕설 · 헐뜯	아무 잘못이 없는 데도 “왜 쳐다봐?”, “기분 나빠?” 등의 시비를 건 적이 있다	7.4	37.2	55.4	4.4	23.3	72.3
	“××놈(년)”, “××새끼” 등의 욕설을 한 적이 있다	24.4	53.8	21.8	12.6	29.0	58.4
	남이 보는 앞에서 친구에게 “못난 놈(년)”, “멍청이” 라고 말한 적이 있다	13.0	42.1	44.9	6.9	22.8	70.3
	“시키는데로 하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았다”는 식으로 헐뜯한 적이 있다	1.1	6.9	92.0	1.6	3.6	94.8
	“매려 죽이겠다”, “없애버리겠다” 는 등의 헐뜯을 한 적이 있다	1.5	8.2	90.3	1.1	4.4	94.4
	시험을 때 답안지를 보여 달라고 헐뜯한 적이 있다	0.5	1.5	98.0	0.2	1.8	98.0
	메집이나 슈퍼마켓 등에 강제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다	2.0	5.4	92.6	0.8	5.4	93.8
	내 숙제를 남에게 강제로 시킨 적이 있다	2.8	3.6	93.6	0.5	2.3	97.2
	가방을 먹지로 들게 한 적이 있다	1.8	1.8	96.4	0.3	2.5	97.2
	남의 준비물, 공책, 연필 등을 빼앗은 적이 있다	2.5	4.4	93.1	0.8	1.6	97.5
강탈 · 구타	점심 도시락을 빼앗아 먹은 적이 있다	1.5	9.8	88.7	1.0	5.1	93.9
	돈을 빼앗은 적이 있다	0.3	2.3	97.4	0.8	1.0	98.2
	시계, 미니카세트, 휴대용CD플레이어, 신발등의 비싼 물건을 빼앗은 적이 있다	0.3	2.0	97.7	0.7	0.7	98.7
	친구의 좋은 물건(신발, 모자, 학용품 등)을 강제로 내 것과 바꾼 적이 있다	2.0	3.3	94.8	0.8	3.0	96.2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4.3	30.7	65.1	2.6	15.1	82.3
	때릴 때 쇠파이프, 농땡이, 쇠초리 등을 사용한 적이 있다	0.8	3.1	96.1	0.3	1.8	97.9
	연필, 볼펜, 펜 등 날카로운 것으로 콧속 찌른 적이 있다	2.8	13.6	83.6	1.6	4.1	94.3

‘어쩌다 한두번’ 행한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살펴보면, ‘“××놈(년)”, “××새끼” 등의 욕설을 한 적이 있다’, ‘한 사람을 가리켜 “재수없다”는 말을 해보았다’가 각각 78.2%, 77.5%로 높게 나타났으며, ‘남이 보는 앞에서 친구에게 “못난 놈(년)”, “멍청이”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거나 ‘친구의 별명을 나쁜 의미로 부르면서 놀렸다’ 도 55.1%, 49.7%로 나타났다. 또한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왜 쳐다봐”, “기분 나빠?” 등의 시비를 건 적이 있다’ 44.6%, ‘일부러 노는데 끼워주지 않았다’ 40.1%, ‘묻는 말에 들은 척도 안했다’ 36.9%,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35.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욕설과 놀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배경변인과 집단따돌림 가해 정도의 관계

배경변인과 집단따돌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전학경험, 거주지역, 주거환경, 생활공간, 부모 존재유무와 친부모 여부, 형제 및 가족의 수와 출생순위,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 경제수준 등을 설문하였다.

그러나 성별, 거주지역, 주거환경 등 세 변인을 제외하고 다른 변인과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a) 배경변인과 집단따돌림 소외·무시 정도의 관계

배경변인과 집단따돌림 소외·무시 정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8>과 같다.

표 8 : 배경변인과 집단따돌림 소외·무시 정도의 관계

집 단		사 례 수	평 균	표 준 편 차	통 계 치
성 별	남 학생	290	23.13	4.16	t=1.44 p=.393
	여 학생	319	22.63	4.34	
지 역	대 도시①	188	22.44	4.40	F=6.54 p=.0015
	중·소 도시②	197	23.77	3.68	
	읍·면③	225	22.46	4.50	
주 거 환 경	주택가(아파트 포함)	421	25.13	2.35	t=3.78 p=.002
	상가, 유흥가 및 기타	189	24.28	2.92	

Scheffe 검증 ①*②, ①*③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소외·무시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

우는 평균값이 23.13이고, 여학생은 평균값이 22.63으로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소외·무시형 집단따돌림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t값이 1.44(p=.393)로서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집단따돌림의 소외·무시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른 집단따돌림 소외·무시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는 평균값이 22.44이고, 중·소도시는 23.77, 읍·면 지역은 22.46으로서 대도시 지역의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세 집단 간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F값은 6.54이며, $p < .05$ 수준에서 집단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며, Scheffe 검증 결과 ①집단과 ②집단, ①집단과 ③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중·소도시 학생들보다 집단따돌림 소외·무시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환경에 따른 집단따돌림 소외·무시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택가에 사는 학생의 경우는 평균값이 25.13이고, 상가·유흥가 및 기타 지역에 사는 학생은 24.28로서 상가·유흥가 및 기타 지역에 사는 학생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t값은 3.78이며, $p < .05$ 수준에서 집단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따라서, 상가·유흥가 및 기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주택가에 사는 학생들보다 집단따돌림 소외·무시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 배경변인과 집단따돌림 조롱·놀림 정도의 관계

배경변인과 집단따돌림 조롱·놀림 정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9>과 같다.

표 9 : 배경변인과 집단따돌림 조롱·놀림 정도의 관계

	집 단	사 례 수	평 균	표 준 편 차	통 계 치
성 별	남 학생	290	31.58	5.32	t=-2.71 p=.031
	여 학생	319	32.71	4.97	
지 역	대 도시①	188	31.86	5.43	F=3.54 p=.029
	중·소 도시②	197	32.97	4.66	
	읍·면③	225	31.73	5.28	
주 거 환 경	주 택 가(아파트 포함)	421	35.16	3.29	t=1.42 p=.038
	상 가, 유흥가 및 기타	189	34.72	3.80	

Scheffe 검증 ②*③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 조롱·놀림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평균값이 31.58이고, 여학생은 평균값이 32.71로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조롱·놀림형 집단따돌림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t값이 -2.71(p=.031)로서 p<.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집단따돌림 조롱·놀림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른 집단따돌림 조롱·놀림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는 평균값이 31.86이고, 중·소도시는 32.97, 읍·면 지역은 31.73으로서 읍·면 지역의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세 집단 간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F값은 3.54이며, p<.05수준에서 집단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며, Scheffe 검증 결과 ②집단과 ③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읍면 지역의 학생들이 중·소도시 학생들보다 집단따돌림 소외·무시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환경에 따른 집단따돌림 조롱·놀림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택가에 사는 학생의 경우는 평균값이 35.16이고, 상가·유흥가 및 기타 지역에 사는 학생은 34.72로서 상가·유흥가 및 기타 지역에 사는 학생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t값은 1.42이며, p<.05수준에서 집단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따라서, 상가·유흥가 및 기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주택가에 사는 학생들보다 집단따돌림 조롱·놀림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 배경 변인과 집단따돌림 욕설·협박 정도의 관계

배경 변인과 집단따돌림 욕설·협박 정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10>과 같다.

표 10 : 배경변인과 집단따돌림 욕설·협박 정도의 관계

	집 단	사 례 수	평 균	표준편차	통계치
성별	남학생	290	43.82	5.45	t=-2.68
	여학생	319	44.99	5.29	p=.398
지역	대도시①	188	43.84	5.47	F=7.36 p=.0007
	중·소도시②	197	45.65	4.37	
	읍·면③	225	43.90	5.96	
주거	주택가(아파트 포함)	421	47.28	3.50	t=2.81
환경	상가, 유흥가 및 기타	189	46.31	4.71	p=.000

Scheffe 검증 ②*①, ②*③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 욕설·협박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평균값이 43.82이고, 여학생은 평균값이 44.99로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조롱·놀림형 집단따돌림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t값이 -2.68 ($p=.398$)로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집단따돌림 욕설·협박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른 집단따돌림 욕설·협박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는 평균값이 43.84이고, 중·소도시는 45.65, 읍·면 지역은 43.90으로서 대도시 지역의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세 집단 간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F값은 7.36이며, $p<.001$ 수준에서 집단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며, Scheffe 검증 결과 ②집단과 ①집단, ②집단과 ③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이 중·소도시 학생들보다 집단따돌림 욕설·협박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거환경에 따른 욕설·협박형 집단따돌림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택가에 사는 학생의 경우는 평균값이 47.28이고, 상가·유흥가 및 기타 지역에 사는 학생은 46.31로서 상가·유흥가 및 기타 지역에 사는 학생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t값은 2.81이며, $p<.000$ 수준에서 집단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따라서, 상가·유흥가 및 기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주택가에 사는 학생들보다 욕설·협박형 집단따돌림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d) 배경 변인과 집단따돌림 강탈·구타 정도의 관계

배경 변인과 집단따돌림 강탈·구타 정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11>과 같다.

표 11 : 배경변인과 집단따돌림 강탈·구타 정도의 관계

	집 단	사 례 수	평 균	표 준 편 차	통 계 치
성별	남학생	290	41.94	3.97	$t=-5.46$ $p=.001$
	여학생	319	43.58	3.44	
지역	대도시①	188	42.60	3.86	$F=.483$ $p=.616$
	중·소도시②	197	42.98	3.88	
	읍·면③	225	42.80	3.63	
주거 환경	주택가(아파트 포함)	421	43.84	2.43	$t=.94$ $p=.093$
	상가, 유흥가 및 기타	189	43.63	2.92	

성별에 따른 집단따돌림 강탈·구타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는 평균값이 41.94이고, 여학생은 평균값이 43.58로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강탈·구타형 집단따돌림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t값이 -5.46 ($p=.001$)으로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집단따돌림 강탈·구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집단따돌림 강탈·구타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도시의 경우는 평균값이 42.60이고, 중·소도시는 42.98, 읍·면 지역은 42.80으로서 대도시 지역의 평균값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세 집단 간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F값은 .483이며, $p<.05$ 수준에서 집단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집단따돌림 강탈·구타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주거환경에 따른 집단따돌림 강탈·구타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주택가에 사는 학생의 경우는 평균값이 43.84이고, 상가·유흥가 및 기타 지역에 사는 학생은 43.63으로서 상가·유흥가 및 기타 지역에 사는 학생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 검증 결과 t값은 .94이며, $p<.05$ 수준에서 집단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집단따돌림 강탈·구타는 주거환경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3) 부모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가해 정도의 관계

a) 부모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소외·무시 정도의 관계

부모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소외·무시 정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12>와 같다.

표 12 : 부모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소외·무시 정도의 관계

		사례수	M	자승합	자유도	F	유의도
부모 양육 태도	통제적인 집단 ①	198	27.13	56.293	2	3.878	.021
	보통인 집단 ②	217	27.35				
	수용적인 집단 ③	194	27.87				
	합 계	609	27.44				

Scheffe 검증 ①*③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집단따돌림 소외·무시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다 통제적인 집단의 정도는 27.13이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통인 집단의 정도는 27.35이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다 수용적인 집단의 정도는

27.87로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인 집단일수록 집단따돌림 소외·무시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세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F값은 3.878이며, $p < .05$ 수준에서 집단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어 부모 양육태도가 보다 통제적인 집단일수록 집단따돌림 소외·무시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b) 부모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조롱·놀림 정도의 관계

부모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조롱·놀림 정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3>와 같다.

표 13 : 부모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조롱·놀림 정도의 관계

		사례수	M	자승합	자유도	F	유의도
부모 양육 태도	통제적인 집단 ①	198	37.36	109.538	2	4.326	.014
	보통인 집단 ②	217	37.59				
	수용적인 집단 ③	194	38.38				
	합계	609	37.77				

Scheffe 검증 ①*③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집단따돌림 조롱·놀림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다 통제적인 집단의 정도는 37.36이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통인 집단의 정도는 37.59이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다 수용적인 집단의 정도는 38.38로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인 집단일수록 집단따돌림 조롱·놀림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세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F값은 4.326이며, $p < .05$ 수준에서 집단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어 부모 양육태도가 보다 통제적인 집단일수록 집단따돌림 조롱·놀림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c) 부모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욕설·협박 정도의 관계

부모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욕설·협박 정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4>과 같다.

표 14 : 부모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욕설·협박 정도의 관계

		사례수	M	자승합	자유도	F	유의도
부모 양육 태도	통제적인 집단 ①	198	49.46				
	보통인 집단 ②	217	49.59	86.244	2	2.683	.069
	수용적인 집단 ③	194	50.33				
	합 계	609	49.78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집단따돌림 욕설·협박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다 통제적인 집단의 정도는 50.33이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통인 집단의 정도는 49.59이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다 수용적인 집단의 정도는 49.46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인 집단일수록 집단따돌림 조롱·놀림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세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F값은 2.683이며, $p < .05$ 수준에서 집단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d) 부모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강탈·구타 정도의 관계

부모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강탈·구타 정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15>와 같다.

표 15 : 부모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강탈·구타 정도의 관계

		사례수	M	자승합	자유도	F	유의도
부모 양육 태도	통제적인 집단 ①	198	46.18				
	보통인 집단 ②	217	46.49	51.117	2	3.474	.032
	수용적인 집단 ③	194	46.90				
	합 계	609	46.52				

Scheffe 검증 ①*③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집단따돌림 강탈·구타 정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다 통제적인 집단의 정도는 46.18이고,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통인 집단의 정도는 46.49이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보다 수용적인 집단의 정도는 46.90로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인 집단일수록 집단따돌림 강탈·구타 정도의 평균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세 집단간의 평균 차이 검증 결과 F값은 3.474이며, $p < .05$ 수준에서 집단간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어 부모 양육태도가 보다 통계적인 집단일수록 집단따돌림 강탈·구타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논 의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나는 초등학교 집단따돌림 가해실태를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배경변인 및 가정환경 요인,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 장에서는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집단따돌림 가해실태에 대하여

본 장에서는 집단따돌림 실태를 분석하는데 있어 집단따돌림 가해실태를 중점 분석하고, 집단따돌림하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주변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방관자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첫째, 집단따돌림 가해실태에 있어서 전체 조사대상 610명 가운데 43.2%가 집단따돌림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대상이나 통계상의 차이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데 무리는 있지만 청소년대화의 광장(1997)의 57.1%보다는 낮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9)의 36.5%, 일본 문부성(1995)의 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1999)의 19.4%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46.9%, 여학생 39.8%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폭력 경험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폭력행동이 높다고 한 연구들과 일치한다(김현경, 1996; 김준호, 1997). 그러나 집단따돌림 소외·무시 행위 등 비폭력적인 따돌림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간의 인성발달에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공격적 성향이 약하다고 하는 Frieze(1985)의 주장이나, 여자는 남자에 비해 부모에게 보다 순종적이며 친구와의 대립을 피하고자 규칙을 잘 정립한다고 하는 생태학적 입장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집단따돌림은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 또한 집단따돌림의 상황에 따라서는 제 3자가 있게 된다. 많은 교육자들은 집단따돌림의 효과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제 3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집단따돌림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 3자들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동조 내지는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대응할 때 집단따돌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방관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는 판단으로 조사한 결과 총 412회의 집단따돌림 상황에서 26.9%(111회)가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22.7%, 여학생 30.8%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인데, 초등학생들은 아직 비행 세력에 대한 조직적인 응집력이 약하여 세력화하지 못함으로써 조직에 대한 두려움이 많지 않고, 도덕적 선악의 판단과 행위에 있어 이중성을 덜 보인다는 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간에 집단따돌림 행위에 대해 맞서 대처한 경우가 65%가 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방관자의 비율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집단따돌림 발생 비율이 중·고등학교 보다 오히려 더 큰 것은 방관자의 역할이 집단따돌림 발생의 중요한 요소가 아님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 배경변인과 집단따돌림 가해 정도의 관계에 대하여

우선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조롱·놀림, 강탈·구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외·무시와 욕설·협박은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 중 남학생이 강탈·구타 등 폭력적인 집단따돌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황성숙(1998)과 유사한 결과이며, 김용태·박한샘(1997)의 결과와도 일치한 면이 있다.

그러나 소외·무시에 있어 남녀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점은 이 두 연구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조사 대상과 통계 처리 방법에 있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초등학생들의 경우 중·고등학생에 비해서 행동의 패턴이 남녀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탈·구타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집단따돌림에 있어 대도시나 읍면지역 학생들이 중소도시 학생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도시의 청소년이 대도시나 읍·면지역 청소년보다 비행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정문성(1992)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비행율이 높다는 결과를 얻고 있으나 읍·면 지역의 경우는 근래의 몇 연구에서만 지지적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통·통신의 발달로 유해 시설, 비행문화의 접촉 기회가 대도시와 소규모 도시간 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단급학교가 많은 읍·면 지역의 경우 수년간 같은 학급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서로간에 친구 개개인에 대한 장단점을 잘 알게 됨으로써 따돌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가·유흥가 및 기타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주택가에 사는 학생들보다 집단

따돌림 소외·무시, 조롱·놀림, 욕설·협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행행위에 있어 유흥업소지역 거주자가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정문성(1992)의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 비행과 유해환경이 대단히 친화적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유혜경, 1986; 김준호, 1987). 결국 집단따돌림이라는 문제 행동을 유발시키고 이를 정당화시키는데 유흥업소 등 유해환경이 관련이 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 개인 배경과 집단따돌림과의 관계를 살펴본바 구조적으로 열악하고 비행행위를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는 거주 환경에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훨씬 더 비행을 많이 경험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정문성, 1992).

3) 부모 양육태도와 집단따돌림 가해 정도의 관계에 대하여

가정환경이 구조적으로 열악하고 통제적인 양육행태를 많이 접하는 청소년일수록 이를 학습할 가능성이 높고, 비행행위의 긍정적 인식 또한 높으며 이는 집단따돌림 같은 문제행동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리라는 전제하에 본 논문에서 가정환경의 한 변인으로서의 부모의 양육 유형을 수용(acceptance)과 통제(control) 두 차원으로 분류하여 집단따돌림 정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적인 집단과 수용적 집단, 중간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따돌림의 하위 유형을 소외·무시, 조롱·놀림, 욕설·협박, 강탈·구타로 나누어 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외·무시, 조롱·놀림, 강탈·구타에서 수용적인 집단보다는 통제적인 집단에서 집단따돌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훈육방식이 정당하고 일관성이 있고 애정적·수용적일 때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통제적인 태도, 심한 체벌, 모순되고 비일관적인 태도는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게 된다(최규련, 1996; 윤진, 1994; 김준호, 1997; 최상숙, 1993; 김형태, 1989; Baumrind, 1973; Patterson, 1992; Mussen, 1979; Martin, 1972)는 여러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자녀의 유대관계가 좋고 부모의 감독과 관심이 적절하며 자녀가 부모에 대해 애착을 가질수록 청소년 자녀의 문제 행동이 적으며(김선에, 1994; 김윤희, 1989; 정현희·오미경, 1993), 부모에 대하여 가지는 애착의 정도가 클수록 비행 가능성이 낮아진다(전숙자, 1985)고 한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욕설·협박에 있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든 통제적이든 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거칠고 황폐한 언

어문화에 젖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가정은 인간이 처음으로 사회관계를 맺는 곳이며 가정을 통하여 사회과정을 경험하면서 성인으로 성장한다. 그러므로 가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의 장이며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가정은 언어 지식은 물론 정서적 발달과 행동양식, 그리고 가치관 등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다(김정제, 1984; 김정옥, 1989).

따라서 부모의 훈육방식이 정당하고 일관성이 있고 애정적·수용적이며, 부모-자녀의 유대관계가 좋고 부모의 감독과 관심이 적절하며 자녀가 부모에 대해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는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집단따돌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첫째, 집단따돌림의 유형을 소외·무시, 조롱·놀림, 욕설·협박, 강탈·구타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초등학교의 집단따돌림은 욕설·협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롱·놀림, 소외·무시, 강탈·구타의 순이었다. 집단따돌림 행위 중에 욕설·협박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거칠고 황폐한 언어문화에 젖어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올바른 심성을 신장·강화시켜 줄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자기통제력 강화 프로그램, 대인관계 관리능력을 기르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

둘째, 배경 변인에 따른 집단따돌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성별, 지역별, 주거환경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집단따돌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도시나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중소도시 학생들보다 집단따돌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가·유흥가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주택가에 사는 학생들보다 집단따돌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구조적으로 열악하고 비행행위를 가장 잘 학습할 수 있는 거주 환경에 있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훨씬 더 비행을 많이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정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도 가정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하며,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빠져드는 것을 방지하는 열악한 가정환경에 대한 관리와 보전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인 집단이 수용적인 집단보다 집단따돌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욕설·협박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 사회전반적으로 거친 언어문화가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내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집단따돌림은 가정, 사회, 학교 등 여러 주위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다른 무엇보다도 가정환경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강화하여 부모-자녀간의 대화를 충분히 하면서 애정적·수용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견지되도록 하고, 부모의 자녀 감독 역시 일관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해야하며, 체벌이 아닌 대화와 사랑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한계점에 근거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을 수도권 일원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4~5학년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추후 요망된다.

둘째, 집단따돌림의 가해 원인을 가정환경적 측면,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에만 강조점을 두었으므로 판별력이 높지 못하다. 집단따돌림은 가정환경적 요인들도 중요하지만 학교와 친구요인, 가해자의 심리적 요인이나 성격적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집단따돌림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 의한 분석이기 때문에 현장감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집단따돌림 가해자에 대한 면담 등을 병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곽중섭(1994), “부모의 양육유형과 아동의 성격형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분용(199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지도 방안”,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청소년대화의광장
- 김병석(1996),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청소년들의 폭력행동을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 가?”,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용태 외(1997), “청소년 친구따돌림의 실태조사”,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Ⅱ」, 청소년대화의광장
- 김준호 외(1991), “청소년 비행의 발전단계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3)
- 김준호 외(1996), “가족의 구조 및 기능과 반사회적 행동”, 「형사정책연구」, 7(1)
- 박정호(1996), “청소년 범죄의 가정환경 요인과 가정환경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치섭(1996), “청소년비행과 가정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미(1998),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왕따현상”, 「서울청소년상담 연구Ⅲ」, 서울특별시청청소년종합상담실 개원1주년기념 심포지움자료집
- 이종원(1998), “일본 청소년 이지메의 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문성(1992), “청소년의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의 관계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 2권 3호, pp.74-89.
- 최윤진 외(1990), “청소년 문제행동 진단을 위한 조사연구(1)”, 한국청소년연구원.
- 최종욱(1994), 「청소년 문제론」, 한서원
- 황성숙(1998), “학교내 집단괴롭힘에 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atterson, G. R., Debarsh, B. D. & Ramsey, E.(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lueck & Glueck(1950), *Ouravellin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Nye, F. I.(1958), *Family Relationship and Deliquent Behavior*, New York: John Willy.
- Sutherland, E. H.(1970), “Differential association”, *The Sociology of Crime and Delinquency*, M. E. Wolfgang, L. Savitz and N. Johnston(eds.), New York: John Wiley
- Akers, R. L., Krohn, M. D., Lonza-Kaduce, L. and Radosevice, M.(1979), “Social learning and deviant behavior: A specific test of a general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Relational Factors of Group Alienation in Elementary School

Kim, Seog-jin *

Recently, the problem of group alienation increases rapidly and this is a serious social problem. This study aims to offer some information to solve effectively the problem of group alienation in elementary school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reasons of group alienation, especially focused on the parents' attitude of bringing up children.

Background factors(sex, locatio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parents' attitude of bringing up their children(strict or generous) are chosen as relational factors. In order to find out the relation between these factor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investigated

1. What are the actual conditions of group alienation like?
2. Is there any correlation between background factors and group alienation?
3. Is there any correlation between parents' attitude of bringing up children and group alienation?

Survey was made to 610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cluding 290 boys and 320 girls in 6th grade in 9 schools in Seoul and the suburbs. This study used two instruments, instrument measuring parents' attitude of bringing up children and that measuring the degree of seriousness of the group alienation which were modified to be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referring to the existing literature and data. Frequency, Credibility, t-test and ANOVA in SPSSWIN+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 Yangjin Elementary School

Firstly, 43.2% of the students answered they had the experience to leave somebody out in the cold at least once. There is more group alienation in boys than in girls. When group alienation happens 26.9% of the students just look on and girls are more likely to be indifferent than boys. Positively or passively, over 65% move against group alienation. This figure is so high in comparison with junior and high school students. That's becau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ve little fear of 'group', as the group fail to present a united front, and they have little duplicity in moral decision.

Secondly, with reference to background factor, to begin with sex. there were more mockery, extortion and blow in boys than in girls but there was no mentionable difference in disregard, abusive language. As for location, all kinds of group alienation, except extortion and blow, happened more frequently in a large city and a small town than in a middle and small city. The reason is supposed that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the cultural gap between large city and small town is smaller and smaller, and in small town, the students know each other so well that it's easy for them to isolate one person. With respect to residential environment, there were more disregard, mockery, abusive language and threat in the students who live in a downtown or an amusement center than in those who live in a residential quarter. This shows that the problematic behavior of group alienation has to do with harmful circumstances such as an amusement quarter.

Thirdly, with regard to the parents' attitude of bringing up children, there were more disregard, mockery, extortion and blow in the students of the strict parents than in those of the generous parents. This suggests that when there is good relationship between child and parents, and there are enough guidance, concern and affection from parents, problematic behaviors decrease.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busive language and threat. This shows that rough and harsh language culture is widespread in our society.

Several suggestions can be deduced from the results.

Firstly, in elementary school, abusive language and threat were the most frequent and then in order of mockery, disregard, extortion and blow. This means that rough and violent language culture is prevalent in our society. Therefore, personality education program to build up and consolidate sound mind, self-control ability buildup program and program to teach how to manage personal relations are needed.

Secondly, there was more group alienation in boys, in the students who live in a large city or a small town, and in those who live in a downtown or an amusement center than in girls, in those who live in a middle and small city and in those who live in a residential quarter. This means that the youth who are under the bad circumstances where misdeeds can be easily learned may commit an irregularity much more. Therefore much support should be given to each home. and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policy of family in inferior circumstances is needed in order to prevent the youth from misconducting themselves.

Thirdly, there was more group alienation in the students of strict parents than in those of generous ones and no mentionable difference in abusive language and threat. This shows that rough language culture pervades all classes of society. The problem of group alienation is related to various factors such as home, society and school. So, it cannot be solved by the effort of any one of them.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greatly influenced by, most of all, family circumstances. Accordingly, it would be better for the parents to have a conversation frequently with their children and to have an affectionate and generous attitude of bringing up children rather than inflict corporal punishment. And they need to direct their children consistently and continuously.